

# 검찰, 전북도의회 의원실 압수수색

〈재량사업비 비리〉 관련

### 도의원 2명 불구속 입건... 또 다른 브로커 기초자치단체 전 의원 수사도 진행 중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2일 전북도의회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도의원 2명이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의원은 재량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모(54.남)씨를 통해 시공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의료기기, 배관설비, 태양광시설 등 3개의 업체로부터 재량사업비 관련 공사를 수주받게 해준 후 2억 5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리베이트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달 19일 구속됐다.

그는 조사결과 업체들에게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수주를 해줄 테니 매출액의 40%를 달라"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받은 리베이트 중 상당 부분이 의원들에게 되돌아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의회 의원들의 사무실과 자택에 수사관을 파견, 압수수색을 단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날 진행된 압수수색은 전날 브로커 김씨의 진술에 따라 의원들의 혐의점을 확보한데 따른 조치로 전해졌다.

전북도의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재량사업비를 올해 추가경정 예산부터



12일 검찰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로 전북도의회 한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어 골머리를 썩고 있다.

한편 재량사업비는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내 각종 민원 해결하거나 지역의 중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위해 특정 명목을 정하지 않고, 1인당 일정

액을 배분해온 사업예산을 말한다. 전북도의원들의 경우 의원 1인당 약 5억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시·군의원은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억원 가량이 지원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또 다른 브로커인 기초자치단체 전 의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광역·기초 의원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가지고 재량사업비 비리에 대해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 전주 향교길 180m구간 정비 완료

### 팔달로-경기전길 사잇길

대한민국 대표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과 남부시장을 잇는 주요 길목인 향교길이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전주시는 총 4억여원을 투입해 팔달로에서 경기전까지 향교길 180m 구간에 대한 도로 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했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을 이어주는 주요 길목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이 낙후되고 전선 지중화도 돼 있지 않아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했던 곳이었다.

또한 인근 성삼여중고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임에도 인도가 없어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왔다.

이에, 시는 해당구간에 대해 한옥마을 경관과 어울리는 도로포장을 실시하고, 학생 및 관광객들을 위해 인도를 개설했으며, 전선 지중화공사도 병행 실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로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향교길 정비사업으로 한옥마을과 인접해 있었음에도 관광객들에게 외면받아온 향교길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상권을 활성화하고, 인근 학교 학생 등 보행자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후된 도로를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의견 수렴

### 덕진 송천2파출소, 노인들 대상

덕진경찰서 송천2파출소는 2일 송천동 소재의 한 교회에서 주민요구에 의한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운영을 위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은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장소 및 구체적인 시간을 순찰 신문고, 모아모아 지도 등 다양한 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해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순찰을 원하는 장소를 취합하고 해당지역을

순찰하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순찰노선을 지정해 주민들이 경찰 순찰에 만족도의 향상을 시키기 위한 치안 서비스 활동이다.

송천2파출소는 다양한 연령대 의견 반영과 통장회의 등을 참석해 주민 여론을 청취해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순찰활동을 위해서 의견수렴의 기회를 꾸준히 가질 계획이다.

김성태 송천2파출소장은 "적극적이고 세심한 순찰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공감하고 호응하는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 고창 한전 전력시험센터 화재

한전 전력시험센터에 화재로 인해 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고창군 상하면에 위치한 한국전력시험센터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서 2일 오전 5시 30분경 화재가 발생해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아외 시설물에서 발생한 화재였고 발화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에너지저장시스템의 리튬배터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한전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설비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분석 중이다. /뉴스

## 전주시, 공공일자리 창출 선도도시 신호탄

### 시설공단, 69명 1일부터 정규직 순차 전환... 고용안정·민간기업 파급 기대

전주시가 지방공기업인 전주시설공단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새 정부 국정최우선 과제인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 선도 지자체로 주목받게 됐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노사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달 20일 발표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전주시설공단 비정규직 종사자 중 상시·지속 업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앞서, 시는 정부 시책 발표보다 한 달 앞선 지난 6월부터 전주시설공단 비정규직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전주시설공단에 근무하는

69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순차적으로 전환되며, 매년 직원들의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축소함으로써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도 도모할 계획이다.

이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 고용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조치이자,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 기업에게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시설공단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는 별도로 신규 사업 추진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발생한 신규 채용 인원 총 29명을 채용하는 등 근로자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제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전주시설공단의 비정규직 69명 정규직 전환과 29명 신규채용은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잘 빠르게 실행하는 첫 번째 사례이자 직장 내 고용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선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전주시설공단을 시작으로 공공기관과 출연기관 등 공공부문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들이 갈급해 하는 취업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 완산 서부파출소, 호흡곤란 후두암 환자 구조

### 최영석 경위·조운재 순경

완산경찰서 서부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신속한 대응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후두암 환자를 구조했다.

완산경찰서 서부파출소 소속 최영석 경위와 조운재 순경은 지난 달 31일 오전 10시경 관내 원룸지역에서 순찰을 하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걸거리를 해매고 있는 70대 노인을 발견했다.

두 경찰관은 노인에게 다가가 확인한 결과 해당 노인은 후두암 환자로 의사소통에 제한이 많았다. /뉴스

의사소통 제한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힘들어 두 경찰관은 문답형식의 대화를 통해 노인의 상태를 파악한 후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 즉시 119 차량을 불러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해 목숨을 살렸다.

최영석 경위와 조운재 순경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관내 원룸 밀집지역을 순찰하던 중 생명이 위태로운 요구조자를 발견하고 즉시 119협조 요청해 순찰차로 가장 가까운 서부119센터 후송, 응급조치 후 전북대병원까지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